

(가)

향후 노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연금이나 건강 보험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정부 지출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비용 상승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조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세의 목적은 정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다. 조세 제도를 고안할 때는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고려된다.

④ **일정한 수입을 징수하면서도 이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세제가 효율적이다. 세금은 경제적 순수실과 조세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 경제적 순수실과 조세 행정 비용이 적을수록 ② 세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제적 순수실은 조세로 인해 바뀐 경제적 유인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이다. 즉 조세가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경제적 순수실이다. 가령 A, B 두 사람이 각각 피자 한 판을 소비해 얻는 효용이 가격보다 커서 소비자 잉여*가 A에게는 3,000원, B에게는 1,000원이 발생한다고 할 때, 정부가 피자 한 판에 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피자 가격이 2,000원 오른다고 하자. 그러면 ③ **A와 달리 B는 피자 구매 의사를 철회해 소비자 잉여의 합이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한다.** 이 경우 ④ **세금 징수액보다 ⑤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금액이 1,000원 많으므로 1,000원의 경제적 순수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조세의 부과는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켜 경제적 순수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생산자 잉여*도 감소시켜 경제적 순수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비용에는 납세자가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치르는 비용과 정부가 세법을 집행하는 데 투입하는 자원 등이 포함된다. 소득 금액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조세 행정 비용이 클 것이다. ⑥ **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 행정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조세의 공평성에서는 조세 원칙으로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중요하다. 편익 원칙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통해 얻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차별적으로 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편익 원칙에 근거하여,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에서 더 큰 편익을 누리므로 세금을 더 내야 공평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편익 원칙을 적용하면 공공재가 사적 재화와 비슷해진다. 한편 능력 원칙은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두 개념이 도출된다. 수직적 공평성은 세금 부담 능력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공평성은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세금도 비슷하게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⑦ **두 가지 개념**은 널리 수용되고 있지만, 이 개념들을 이용하여 조세 제도를 평가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두 사람의 능력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세제의 중요한 목표가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점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는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 개정안 중에는 ⑧ **효율성을 증진하는 대신 공평성을 희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⑨ **공평성을 증진하지만 효율성은 저해하는** 제안도 있다. 사람들이 조세 정책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도 사람에 따라 효율성

과 공평성에 대해 서로 다른 비중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 소비자 잉여 :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뺀 차액.

* 생산자 잉여 : 생산자가 상품을 시장에 판매할 때 얻는 수입이 해당 상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생산 비용보다 커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잉여.

(나)

모든 정부는 도로, 교육, 국방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하여 여러 세원으로부터 조세를 거둔다. 세원은 조세 부과 대상이 되는 ⑩경제 요소 혹은 ⑪경제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⑫소득이나 재산, 혹은 부가가치가 세원이 될 수도 있고, ⑬재산을 사고파는 행위나 소유권을 등록하는 행위 같은 것도 세원이 될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세원을 통해 징수되는 조세는 ⑭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조세 부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조세의 부과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령 어떤 지방 정부가 아이스크림 축제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⑮아이스크림 구입자에게 **개당 5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공급자들의 경제적 유인에는 변화가 없어 공급량이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금 부과로 아이스크림의 실질적인 구입 가격이 상승하므로 각 가격 수준에서 구입자들의 희망 구입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균형 거래량이 감소해 아이스크림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도 하락한다. 세금 부과 전의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세금 부과로 공급자들이 아이스크림 하나당 980원의 수입을 거두게 된다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1,030원이 된다. 그렇다면 ⑯아이스크림 공급자에게 **5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세금이 공급자에게 부과되므로 수요량은 변화가 없는 반면 공급자는 세금 때문에 아이스크림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는 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져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1,030원이 되면, 공급자가 세금을 내고 거두는 수입은 980원이 된다. 이 사례들은 모두 세금에 의해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그 재화의 구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크기는 ⑰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구입자들은 그렇지 않은 시장은 ⑱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이다.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⑲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지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보다 커서 그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 시장에 세금이 ⑳부과되면, ㉑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이 작아 소비자 잉여보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되는 폭이 작다. 반면 구입자들이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구입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매우 탄력적인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지만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해 소비자 잉여보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되는 폭이

크다. 따라서 공급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㉔ ㉔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

[연습문제]

1. 다음은 ㉑ 대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징수한 수입 () 소요되는 비용

2. 다음은 ㉒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세금을 징수할 때 소요되는 ()적 ()이/가 (증가/감소)하여

3. 다음은 ㉓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세금 부과 이전(기존)의 피자 가격을 P라고 하자. 소비자 잉여의 식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잉여 = 지불용의 -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

이 때, 지불용의는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의 (상한선/하한선)이다. 즉 소비자는 상품의 가격이 지불용의보다 (높을/낮을) 경우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위의 식을 통해 A와 B의 지불용의를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에 대한 A의 지불용의 = ()
 ()에 대한 B의 지불용의 = ()

따라서 피자의 가격에 따른 A와 B의 피자 구매 여부는 다음과 같다.

피자의 가격	A의 구매 여부	B의 구매 여부
() (초과/이상)	X	X
() (초과/이상) () (이하/미만)	O	X
() (이하/미만)	O	O

세금 부과 이후의 피자 가격을 P_t라고 할 때, 정부가 피자 한 판에 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P_t = ()이다. 그렇다면 A는 피자를 구매(하고/하지 않고), B는 피자를 구매(하게/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B의 소비자 잉여는 발생(한다/하지 않는다).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의 소비자 잉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	세금 부과 이전	세금 부과 이후
지불용의	A의 지불용의 = () B의 지불용의 = ()	

피자의 가격	P	P + 2,000원
소비자 잉여	A의 소비자 잉여 = () B의 소비자 잉여 = () 총 소비자 잉여 = ()	A의 소비자 잉여 = () B의 소비자 잉여 () 총 소비자 잉여 = ()

4. ④와 ⑤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각각 쓰세요.

④	
⑤	

5. 다음은 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 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에 비해 세금 부과를 통한 소득 격차 해소가 잘 (이루어진다/이루어지지 않는다).

6. ⑦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

7. 다음은 '인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두세(人頭稅, tax per head; poll tax)'는 모든 과세 대상자에게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두세에서는 과세 대상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를 참고하여 인두세가 ⑧과 ⑨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세요.

--

8. ⑫와 ⑬이 ⑩과 ⑪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세요.

⑩	
⑪	

9. 다음은 ⑭의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를 참고하여 빈 칸을 채우세요.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시켜 ()을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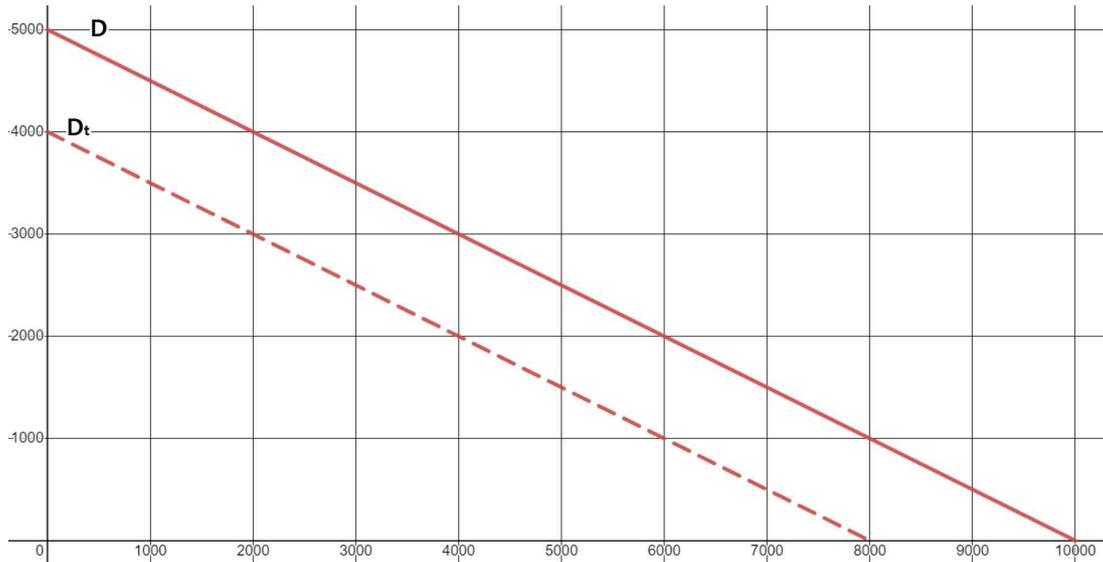
10. 다음은 ⑮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1) 재화의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수요함수의 이동에 대한 논의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재화의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 때 가격은 (독립/종속)변수가 되고 수량은 (독립/종속) 변수가 된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함수를 나타낼 때 독립변수를 (가로/세로)축에, 종속변수를 (가로/세로)축에 나타내는 것과 반대로 가격을 (가로/세로)축에, 수량을 (가로/세로)축에 나타내게 된다.

재화의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특정 재화의 구입자에게 구매하는 재화 1개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한다.



그림의 위쪽에 있는 실선 D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수요곡선이고, 아래쪽에 있는 점선 Dt는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의 수요곡선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가격이 3,000원일 때, 재화의 수요량은 ()개이다. 그런데 구입자에게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재화의 가격이 ()원이라도 구입자가 실질적으로 재화 1단위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3,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구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세금이 없을 때 재화의 가격이 3,000원인 상황과 실질적으로 (다르다/다를 게 없다). 이에 따라 다음의 상황이 성립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서 재화의 가격이 3,000원일 때의 수요량과, 재화의 구입자에게 재화 1개 당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재화의 가격이 ()원일 때의 수요량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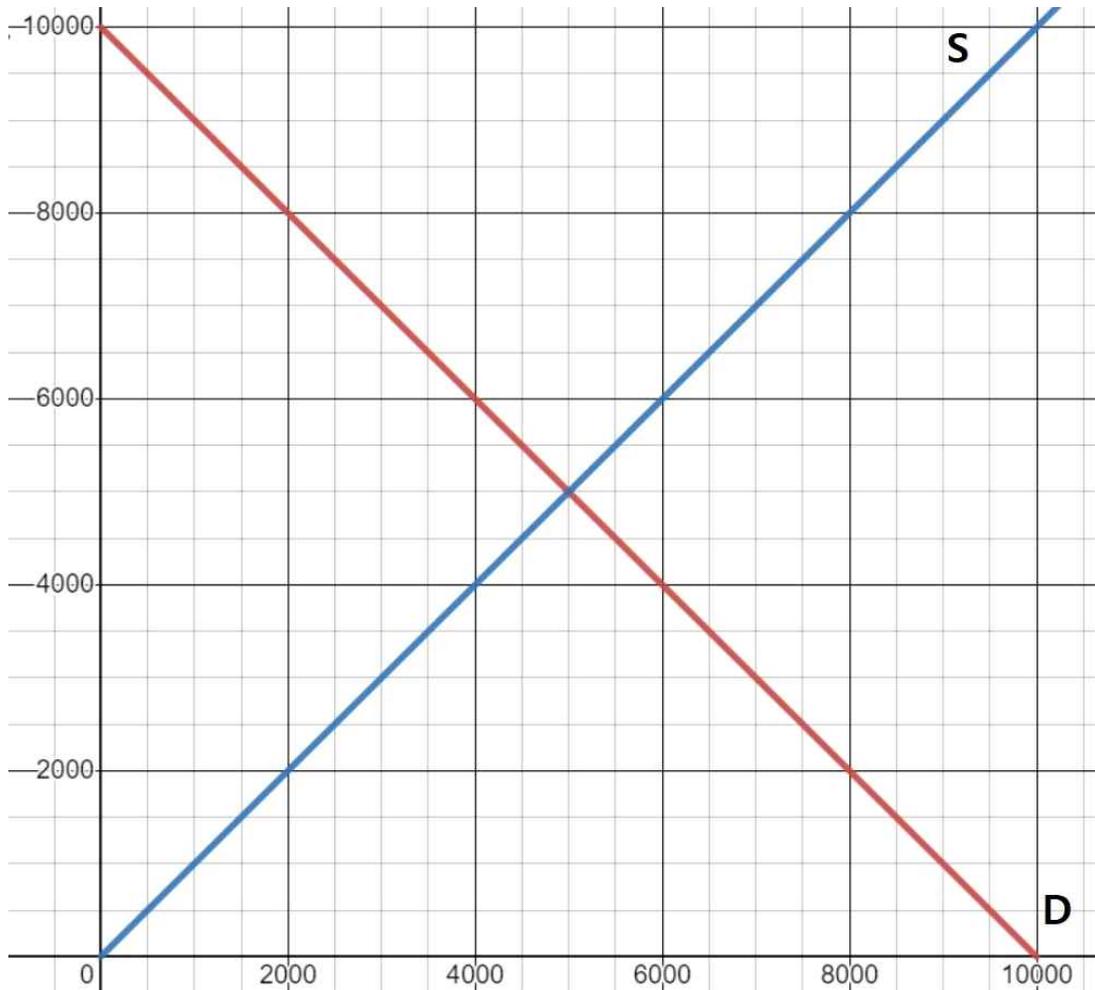
그렇다면 세금이 부과되면서 재화의 가격이 ()원일 때의 수요량은 ()개가 된다. 이를 나타내는 점은 기존(세금 부과 이전)의 수요곡선에 비해 ()만큼 아래에 위치한 곳에 찍히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를 재화의 가격이 다를 때에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될 때의 수요곡선을 구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수요곡선에 비해 ()만큼 (위/아래)로 평행이동한 선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제시된 사례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의 액수가 다를 때에도 적용되고, 수요의 양상이 달라 수요곡선의 모양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재화의 구입자에게 구입하는 재화 1개당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수요곡선은 세금 부과액만큼 (위/아래)로 평행이동한다.

그런데 이 때 공급자가 (구입/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공급자가 직면하는 상황은 (동일하고/동일하지 않고), 그에 따라 동일한 가격에서의 공급량은 (동일하므로/동일하지 않으므로), 공급곡선은 (변한다/변하지 않는다).

(2) 수요, 공급과 균형에 대한 논의

위에서 언급했듯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재화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량은 (증가/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감소)한다. 이는 구입자나 공급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우상향/우하향)하는, 즉 기울기가 0보다 (큰/작은) 형태가 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우하향)하는, 즉 기울기가 0보다 (큰/작은) 형태가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 : 수요곡선, S : 공급곡선)

재화의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이 변하게 된다. 만약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까지 가격이 (상승/하락)하게 되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까지 가격이 (상승/하락)하게 된다. 가격의 조정으로 인해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일치가 해소되면 가격은 변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 즉 **가격과 수요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의 재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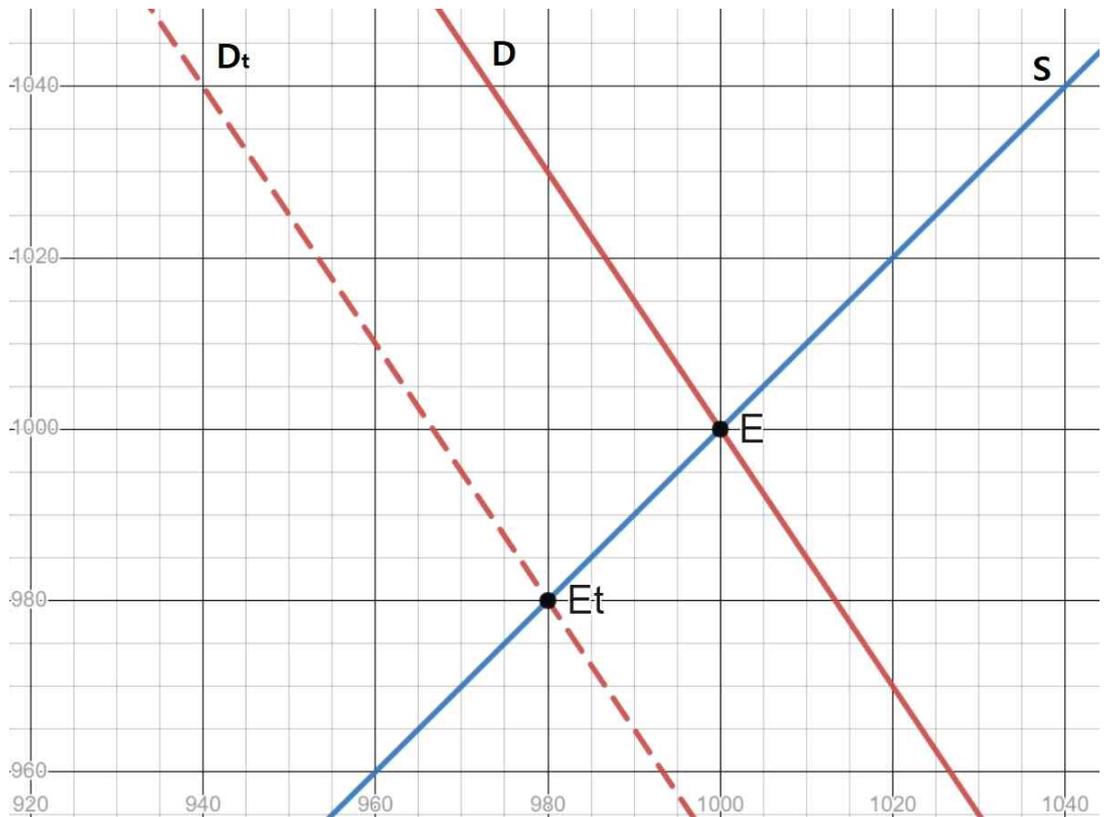
가격과 거래량을 각각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고/일치하지 않고) 그 수량이 곧 ()이 되므로 수요량과 공급량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재화의 가격이 6,000원이어서 (수요량/공급량)이 (수요량/공급량)보다 많은 경우 재화의 가격은 ()원이 될 때까지 (상승/하락)하게 되고, 재화의 가격이 4,000원이어서 (수요량/공급량)이 (수요량/공급량)보다 많은 경우 재화의 가격은 ()원이 될 때까지 상승한다. 물론 가격이 ()원에 도달하면 가격은 (변하고/변하지 않고) ()이/가 형성된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개이다.

이를 통해 ()의 그래프와 ()의 그래프가 만나는 ()이/가 '균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⑮의 상황에 대한 논의(적용)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⑮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나타내는 그림은 다음과 같다.



아이스크림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때의 수요곡선은 (위/아래)쪽에 있는 (실선/점선) (D/D_t)이고, 세금이 부과될 때의 수요곡선은 (위/아래)쪽에 있는 (실선/점선) (D/D_t)이다. 물론 공급곡선은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나 부과되지 않을 때나 똑같이 S이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때의 균형은 (D/D_t)와 S가 교차하는 (E/E_t)이다. 이 때의 균형 가격은 ()원이다. 이 경우 구입자는 구입한 아이스크림 1개 당 ()

원을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고, 공급자는 판매한 아이스크림 1개 당 ()원을 받게 된다.

세금이 부과될 때의 균형은 (D/D_0) 와 S 가 교차하는 (E/E_0) 이다. 이 때의 균형 가격은 ()원이다. 그런데 구입자가 구입한 아이스크림 1개 당 지불하는 금액은 ()원이 아니다. ()의 존재 때문이다. 구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원에 50원의 세금을 더한 ()원이 된다. 물론 이 경우 공급자가 판매한 아이스크림 1개 당 받게 되는 금액은 균형 가격과 (일치하는/일치하지 않는) ()원이다. 공급자에게는 판매에 따른 ()이 (부과되기/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11. 다음은 ㉔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1)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급함수의 이동에 대한 논의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급의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특정 재화의 공급자에게 판매하는 재화 1개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한다.

아래쪽에 있는 실선 S 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공급곡선이고, 위쪽에 있는 점선 S_t 는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의 공급곡선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가격이 2,000원일 때, 재화의 공급량은 ()개이다. 그런데 공급자에게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재화의 가격이 ()원이라도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재화 1단위를 판매할 때 얻는 수입은 2,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구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세금이 없을 때 재화의 가격이 2,000원인 상황과 실질적으로 (다르다/다를 게 없다). 이에 따라 다음의 상황이 성립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서 재화의 가격이 2,000원일 때의 공급량과, 재화의 구입자에게 재화 1개 당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재화의 가격이 ()원일 때의 공급량은 같다.

그렇다면 세금이 부과되면서 재화의 가격이 ()원일 때의 공급량은 ()개가 된다. 이를 나타내는 점은 기존(세금 부과 이전)의 공급곡선에 비해 ()만큼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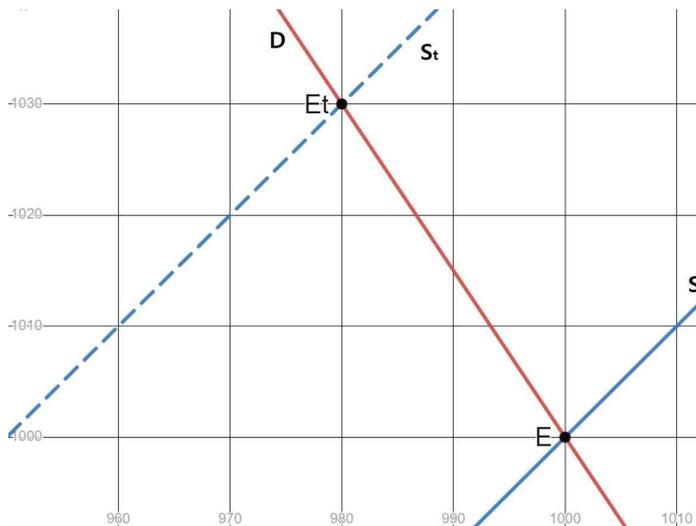
위치한 곳에 찍히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를 재화의 가격이 다를 때에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될 때의 수요곡선을 구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수요곡선에 비해 ()만큼 (위/아래)로 평행이동한 선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화의 구입자에게 구입하는 재화 1개당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수요곡선은 세금 부과액만큼 (위/아래)로 평행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수요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구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각각 동일한 가격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증가/감소)를 초래한다. 그런데 수요곡선은 (위/아래)로 이동하는 반면, 공급곡선은 (위/아래)로 이동한다. 이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기울기의 부호가 (일치한다는/반대라는) 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모두 일반적인 그래프와 달리, 독립변수인 (가격/수량)을 (가로/세로)축에, 종속변수인 (가격/수량)을 (가로/세로)축에 나타낸 평면에 표시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공급이 감소한다면 수요/공급곡선은 (왼쪽/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0보다 (큰/작은) (우상향/우하향)하는 선이고, 공급곡선은 기울기가 0보다 (큰/작은) (우상향/우하향)하는 선이다. 그 결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수요곡선은 (위/아래)로, 공급곡선은 (위/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2) ㉔의 상황에 대한 논의(적용)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㉔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㉓와 ㉔은 동일한 시장에서의 상황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수요함수, 공급함수는 ㉓와 ㉔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㉔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은 다음과 같다.



아이스크림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때의 상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세금 부과 여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세금이 부과됨
공급곡선		
수요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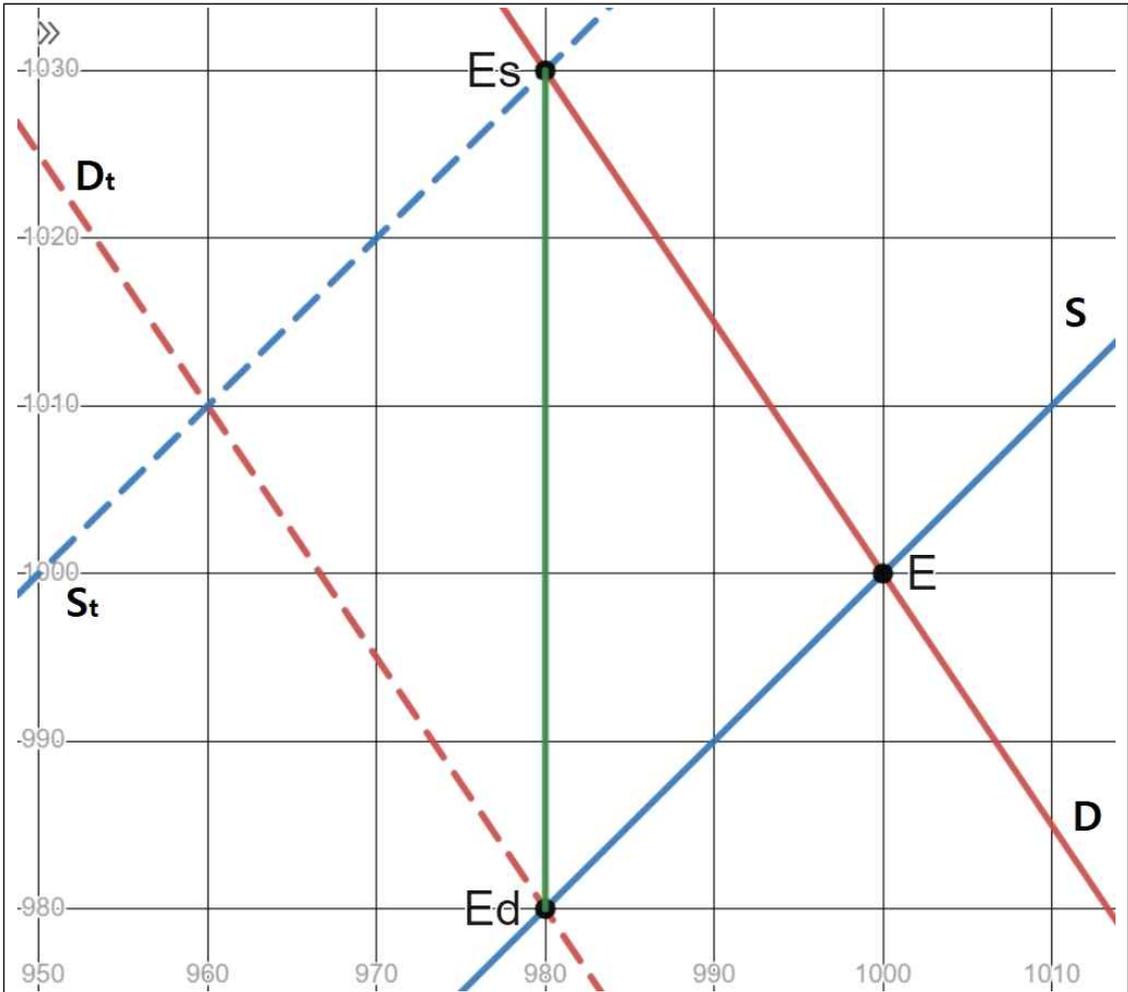
균형점		
균형 가격	()원	()원
구입자의 지불 가격 (아이스크림 1개당)	()원	()원
공급자의 판매 수입 (아이스크림 1개당)	()원	()원

(3) ⑮와 ⑯의 비교

⑮와 ⑯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	⑮	⑯
구입자의 지불 가격 (아이스크림 1개당)	()원	()원
공급자의 판매 수입 (아이스크림 1개당)	()원	()원

⑮와 ⑯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다르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가격은 같다. 즉 재화에 대한 일정액의 세금은 구입자에게 부과되든 공급자에게 부과되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그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구입자/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때의 수요곡선은 빨간색 실선 D 이고, (구입자/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때의 공급곡선은 파란색 실선 S 이다.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수요곡선은 D_t 이고,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급곡선은 S_t 이다. 따라서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의 균형은 수요곡선 (D/D_t)과 공급곡선 (S/S_t)의 교점 (E/E_d)이고,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의 균형은 수요곡선 (D/D_t)과 공급곡선 (S/S_t)의 교점 (E/E_s)이다.

그런데 D_t 는 D 가 초록색 실선으로 나타난 선분 E_sE_d 를 따라 (위/아래)로 ()만큼, S_t 는 S 가 해당 선을 따라 (위/아래)로 ()만큼 평행이동한 선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입자에게 재화 1단위당 t 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와 공급자에게 재화 1단위당 t 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균형 ()은 동일하고, 균형 가격은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보다 ()만큼 (높다/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입자의 지불 가격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다음과 같다. 이 때 E_d 에서의 가격을 P_d , E_s 에서의 가격을 P_s 라고 한다.

상황(세금 부과 대상)	구입자	공급자
구입자의 재화 1개당 지불 가격		
공급자의 재화 1개당 판매 수입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모양이 다른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화의 구입자에게 재화 1개당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나, 재화의 공급자에게 재화 1개당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나 부과하는 세금의 액수가 같다면 실질적인 결과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글쓴이가 ㉞에서 '기울기'라는 말 대신 '기울기의 절댓값'이라는 말을 쓴 이유를 추론하여 서술하세요.

13. 다음은 ㉟의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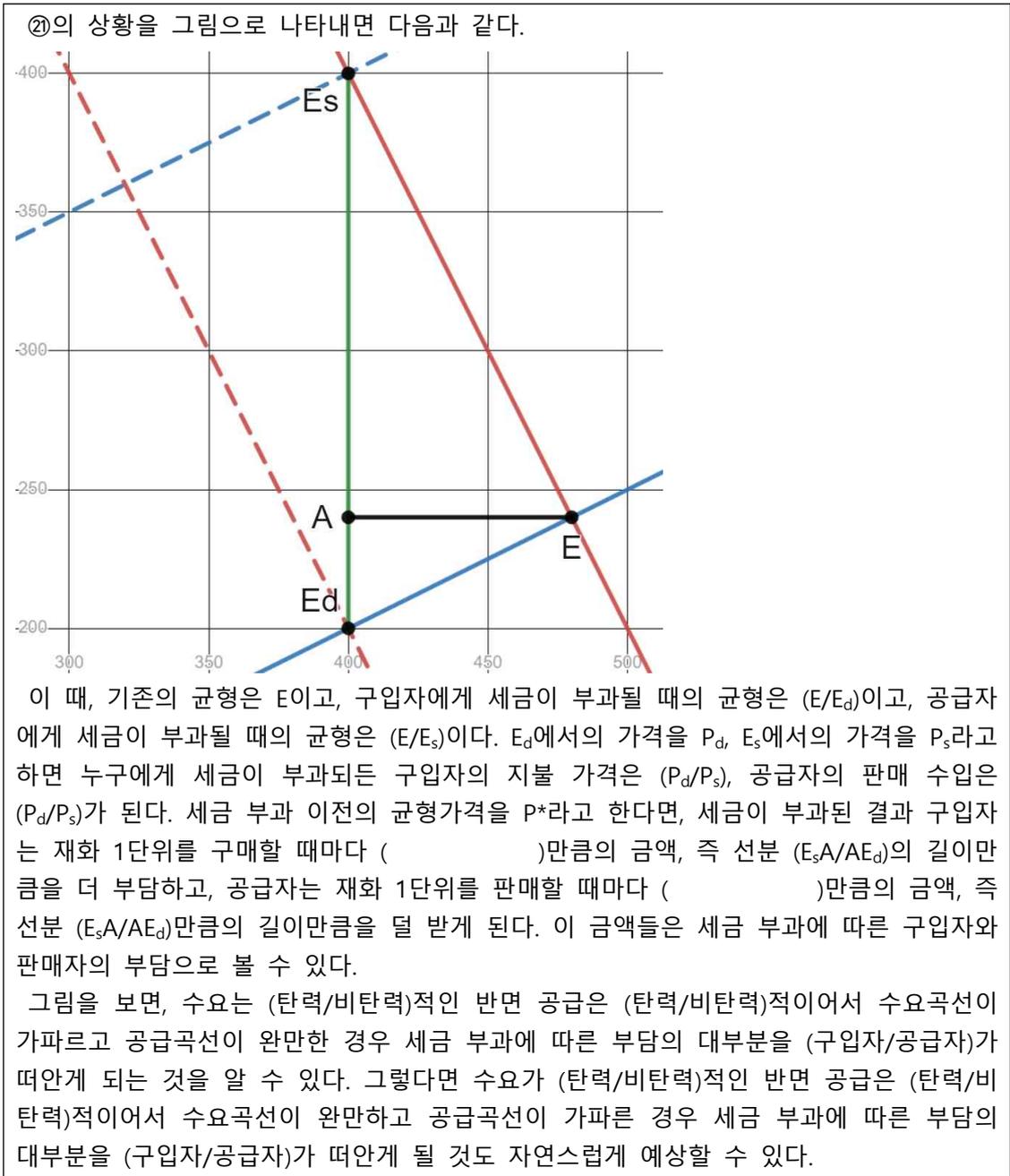
구분	의미	식
수요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공급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frac{\text{공급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다음은 ㉞에서 ㉟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모두 일반적인 그래프와 달리, 독립변수인 (가격/수량)을 (가로/세로)축에, 종속변수인 (가격/수량)을 (가로/세로)축에 나타낸 평면에 표시된다. 그렇다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공급량이 변하는 정도가 클수록 수요/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완만해)진다. 그리고 가격탄력성의 정의에 의해,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공급량이 변하는 정도가 크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수요/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완만해)진다.

14. 문맥을 고려하여 ㊱의 대상(객체)이 '구입자'인지 '공급자'인지 '특정할 수 없음'인지 쓰세요.

15. 다음은 ㉔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16. 다음은 ㉔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와 () 중

17. 다음은 ㉔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구입자든 공급자든,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입하거나 생산하는 재화의 양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 가격이 올라도 쌀 구매를 큰 폭으로 줄이지 못하는 구입자나, 설비의 문제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도 생산을 큰 폭으로 늘리지 못하는 생산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쪽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쪽에 비해 (유리/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더 (큰/작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냐와 관계없이 낮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쪽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도 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예시답안]

1. 다음은 ① 대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징수한 수입 (대비) 소요되는 비용

2. 다음은 ②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세금을 징수할 때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 (감소)하여

3. 다음은 ③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세금 부과 이전(기존)의 피자 가격을 P라고 하자. 소비자 잉여의 식은 다음과 같다.

$$\text{소비자 잉여} = \text{지불용의} - \text{소비자가 지불한 가격}$$

이 때, 지불용의는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의 (상한선)이다. 즉 소비자는 상품의 가격이 지불용의보다 (높을) 경우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위의 식을 통해 A와 B의 지불용의를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피자)에 대한 A의 지불용의} &= (P + 3,000\text{원}) \\ \text{(피자)에 대한 B의 지불용의} &= (P + 1,000\text{원}) \end{aligned}$$

따라서 피자의 가격에 따른 A와 B의 피자 구매 여부는 다음과 같다.

피자의 가격	A의 구매 여부	B의 구매 여부
(P + 3,000원) (초과)	X	X
(P + 1,000원) (초과) (P + 3,000원) (이하)	O	X
(P + 1,000원) (이하)	O	O

세금 부과 이후의 피자 가격을 P_t라고 할 때, 정부가 피자 한 판에 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P_t = (P + 2,000원)이다. 그렇다면 A는 피자를 구매(하고), B는 피자를 구매(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B의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의 소비자 잉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	세금 부과 이전	세금 부과 이후
지불용의	A의 지불용의 = (P + 3,000원)	

	B의 지불용의 = (P + 1,000원)	
피자의 가격	P	P + 2,000원
소비자 잉여	A의 소비자 잉여 = (3,000원) B의 소비자 잉여 = (1,000원) 총 소비자 잉여 = (4,000원)	A의 소비자 잉여 = (1,000원) B의 소비자 잉여 (발생하지 않음) 총 소비자 잉여 = (1,000원)

4. ④와 ⑤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각각 쓰세요.

④	2,000원
⑤	3,000원

5. 다음은 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 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에 비해 세금 부과를 통한 소득 격차 해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6. ⑦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7. 다음은 '인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두세(人頭稅, tax per head; poll tax)'는 모든 과세 대상자에게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두세에서는 과세 대상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를 참고하여 인두세가 ⑧과 ⑨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세요.

⑧

8. ⑫와 ⑬이 ⑩과 ⑪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세요.

⑩	⑫
⑪	⑬

9. 다음은 ⑭의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를 참고하여 빈 칸을 채우세요.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시켜 (경제적 순수실)을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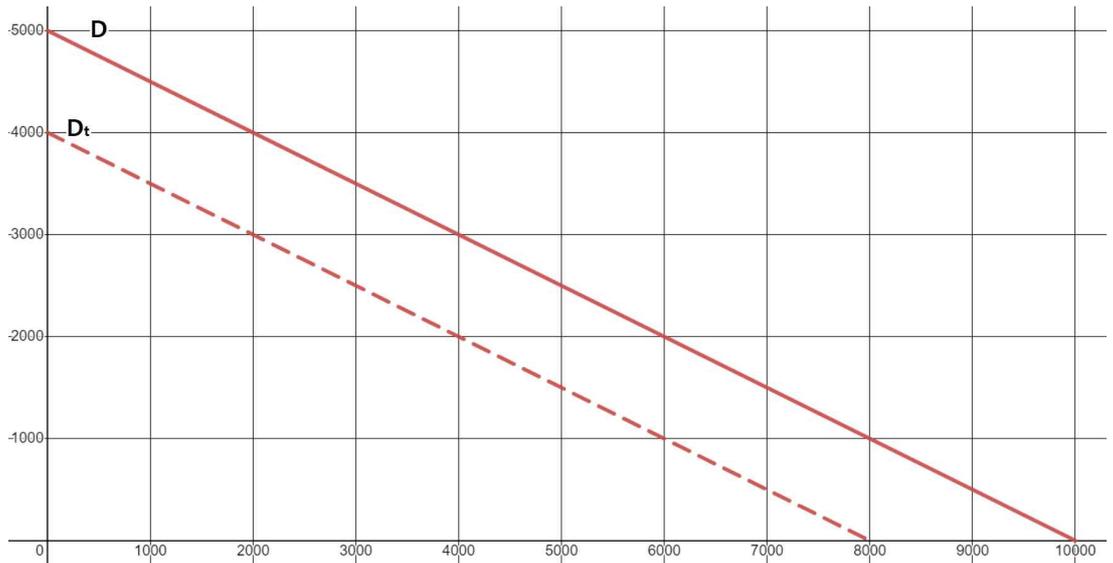
10. 다음은 ⑮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1) 재화의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수요함수의 이동에 대한 논의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재화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 때 가격은 (독립)

변수가 되고 수량은 (종속) 변수가 된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함수를 나타낼 때 독립변수를 (가로)축에, 종속변수를 (세로)축에 나타내는 것과 반대로 가격을 (세로)축에, 수량을 (가로)축에 나타내게 된다.

재화의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특정 재화의 구입자에게 구매하는 재화 1개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한다.



그림의 위쪽에 있는 실선 D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수요곡선이고, 아래쪽에 있는 점선 D_t 는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의 수요곡선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가격이 3,000원일 때, 재화의 수요량은 (4,000)개이다. 그런데 구입자에게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재화의 가격이 (2,000)원이라도 구입자가 실질적으로 재화 1단위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3,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구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세금이 없을 때 재화의 가격이 3,000원인 상황과 실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이에 따라 다음의 상황이 성립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서 재화의 가격이 3,000원일 때의 수요량과, 재화의 구입자에게 재화 1개 당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재화의 가격이 (2,000)원일 때의 수요량은 같다.

그렇다면 세금이 부과되면서 재화의 가격이 (2,000)원일 때의 수요량은 (4,000)개가 된다. 이를 나타내는 점은 기존(세금 부과 이전)의 수요곡선에 비해 (1,000)만큼 아래에 위치한 곳에 찍히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를 재화의 가격이 다를 때에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될 때의 수요곡선을 구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수요곡선에 비해 (1,000)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 선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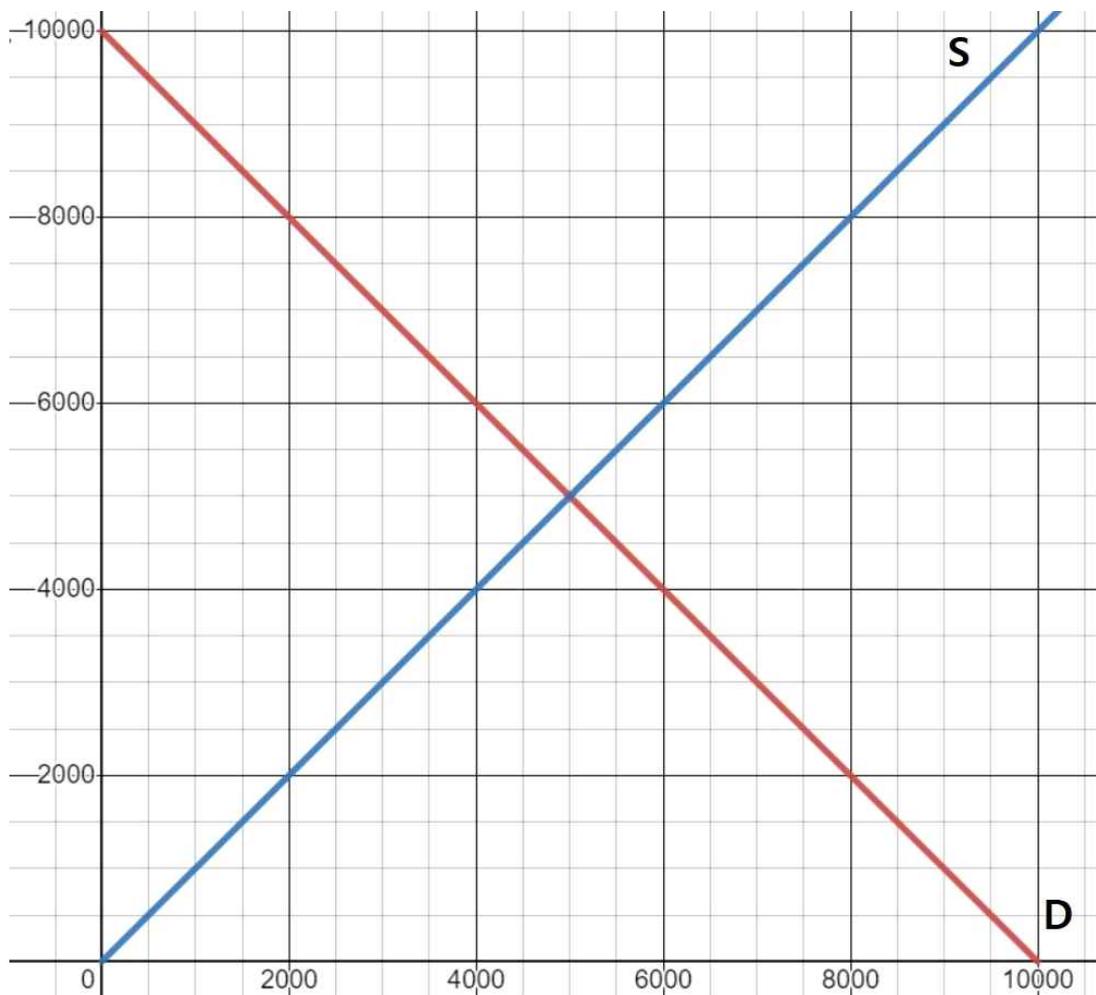
이러한 내용은 제시된 사례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의 액수가 다를 때에도 적용되고, 수요의 양상이 달라 수요곡선의 모양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재화의 구입자에게 구입하는 재화 1개당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수요곡선은 세금 부과액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그런데 이 때 공급자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공급자가 직면하는 상황은 (동일하고), 그에 따라 동일한 가격에서의 공급량은 (동일하므로), 공급곡선은 (변화

지 않는다).

(2) 수요, 공급과 균형에 대한 논의

위에서 언급했듯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재화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는 구입자나 공급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즉 기울기가 0보다 (작은) 형태가 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즉 기울기가 0보다 (큰) 형태가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 : 수요곡선, S : 공급곡선)

재화의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이 변하게 된다. 만약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까지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가격의 조정으로 인해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일치가 해소되면 가격은 변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 즉 **가격과 수량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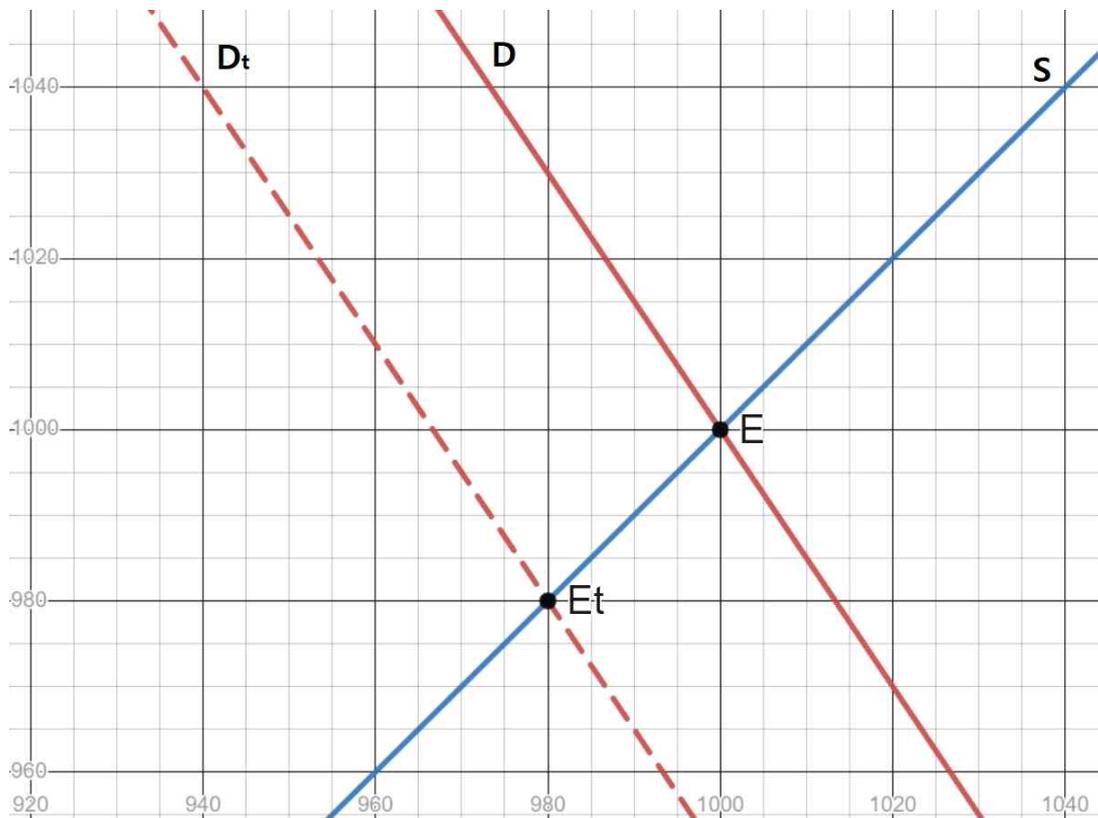
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의 재화의 가격과 거래량을 각각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고) 그 수량이 곧 (거래량)이 되므로 수요량과 공급량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재화의 가격이 6,000원이어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경우 재화의 가격은 (5,000)원이 될 때까지 (하락)하게 되고, 재화의 가격이 4,000원이어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 재화의 가격은 (5,000)원이 될 때까지 상승한다. 물론 가격이 (5,000)원에 도달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이 형성된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5,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5,000)개이다.

이를 통해 (수요함수)의 그래프와 (공급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균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㉔의 상황에 대한 논의(적용)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㉔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나타내는 그림은 다음과 같다.



아이스크림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때의 수요곡선은 (위)쪽에 있는 (실선) (D)이고, 세금이 부과될 때의 수요곡선은 (아래)쪽에 있는 (점선) (D_t)이다. 물론 공급곡선은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나 부과되지 않을 때나 똑같이 S이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때의 균형은 (D)와 S가 교차하는 (E)이다. 이 때의 균형 가격은 (1,000)원이다. 이 경우 구입자는 구입한 아이스크림 1개 당 (1,000)원을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고, 공급자는 판매한 아이스크림 1개 당 (1,000)원을 받게 된다.

세금이 부과될 때의 균형은 (D_t)와 S 가 교차하는 (E_t)이다. 이 때의 균형 가격은 (980)원이다. 그런데 구입자가 구입한 아이스크림 1개 당 지불하는 금액은 (980)원이 아니다. (세금)의 존재 때문이다. 구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980)원에 50원의 세금을 더한 (1,030)원이 된다. 물론 이 경우 공급자가 판매한 아이스크림 1개 당 받게 되는 금액은 균형 가격과 (일치하는) (980)원이다. 공급자에게는 판매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11. 다음은 ㉞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1)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급함수의 이동에 대한 논의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급의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특정 재화의 공급자에게 판매하는 재화 1개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한다.

아래쪽에 있는 실선 S 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공급곡선이고, 위쪽에 있는 점선 S_t 는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의 공급곡선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가격이 2,000원일 때, 재화의 공급량은 (4,000)개이다. 그런데 공급자에게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재화의 가격이 (3,000)원이라도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재화 1단위를 판매할 때 얻는 수입은 2,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구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세금이 없을 때 재화의 가격이 2,000원인 상황과 실질적으로 (다르게 없다). 이에 따라 다음의 상황이 성립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서 재화의 가격이 2,000원일 때의 공급량과, 재화의 구입자에게 재화 1개 당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재화의 가격이 (3,000)원일 때의 공급량은 같다.

그렇다면 세금이 부과되면서 재화의 가격이 (3,000)원일 때의 공급량은 (4,000)개가 된다. 이를 나타내는 점은 기존(세금 부과 이전)의 공급곡선에 비해 (1,000)만큼 위에 위치한 곳에 찍히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를 재화의 가격이 다를 때에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될 때의 수요곡선을 구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수요곡선에 비해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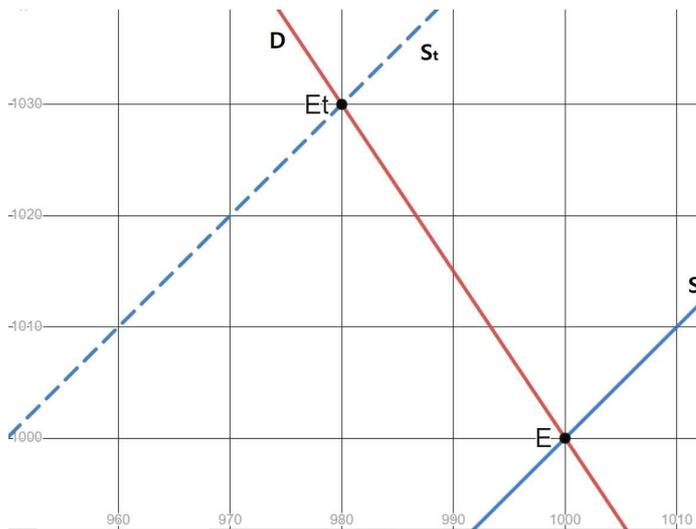
만큼 (위)로 평행이동한 선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화의 구입자에게 구입하는 재화 1개당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수요곡선은 세금 부과액만큼 (위)로 평행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수요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구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각각 동일한 가격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런데 수요곡선은 (아래)로 이동하는 반면, 공급곡선은 (위)로 이동한다. 이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모두 일반적인 그래프와 달리, 독립변수인 (가격)을 (세로)축에, 종속변수인 (수량)을 (가로)축에 나타낸 평면에 표시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공급이 감소한다면 수요/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우하향)하는 선이고, 공급곡선은 기울기가 0보다 (큰) (우상향)하는 선이다. 그 결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수요곡선은 (아래)로, 공급곡선은 (위)로 이동하게 된다.

(2) ㉔의 상황에 대한 논의(적용)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㉔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㉓와 ㉔은 동일한 시장에서의 상황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수요함수, 공급함수는 ㉓와 ㉔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㉔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은 다음과 같다.



아이스크림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때의 상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세금 부과 여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세금이 부과됨
공급곡선	S	S_t
수요곡선	D	D
균형점	E	E_t
균형 가격	(1,000)원	(1,030)원
구입자의 지불 가격	(1,000)원	(1,0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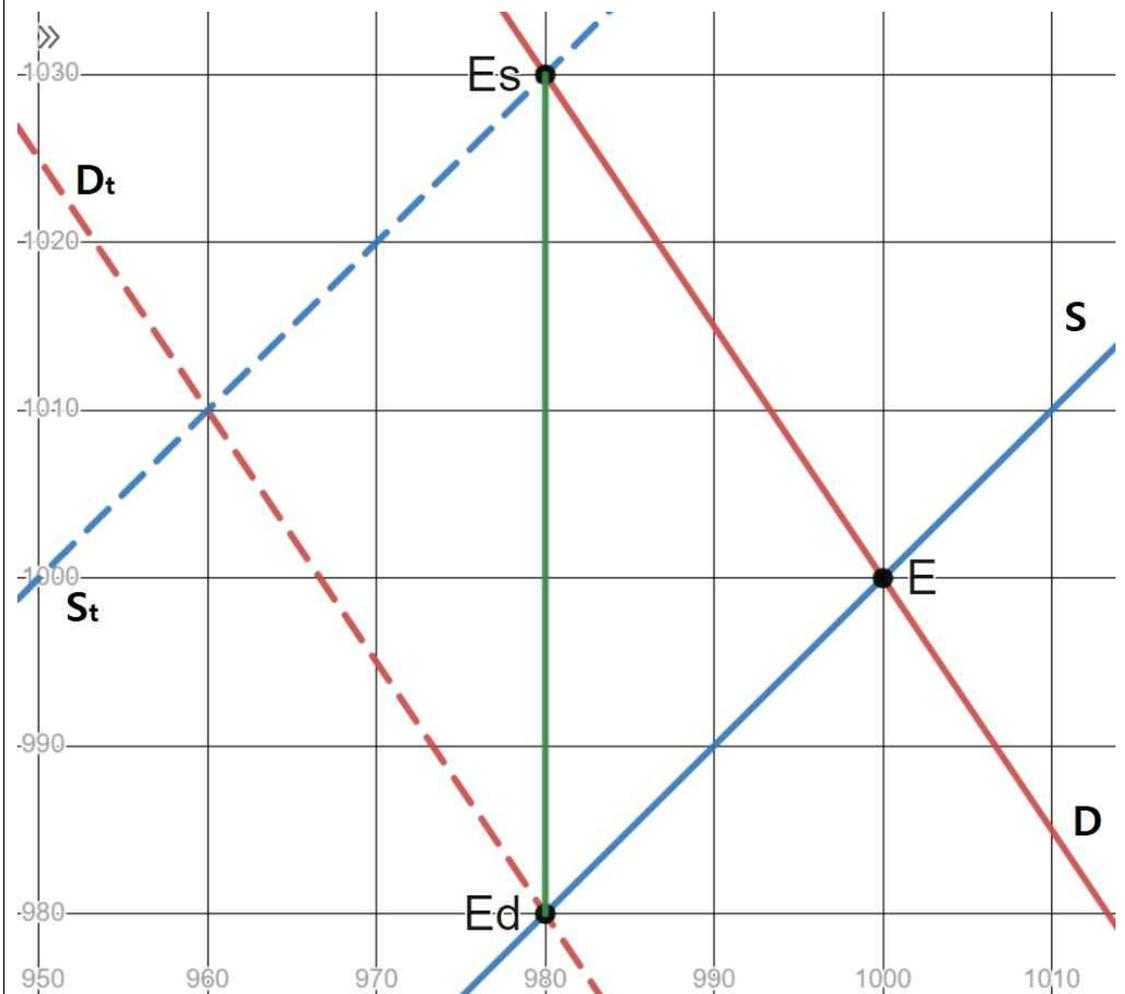
(아이스크림 1개당)		
공급자의 판매 수입 (아이스크림 1개당)	(1,000)원	(980)원

(3) ⑮와 ⑯의 비교

⑮와 ⑯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	⑮	⑯
구입자의 지불 가격 (아이스크림 1개당)	(1,030)원	(1,030)원
공급자의 판매 수입 (아이스크림 1개당)	(980)원	(980)원

⑮와 ⑯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다르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가격은 같다. 즉 재화에 대한 일정액의 세금은 구입자에게 부과되든 공급자에게 부과되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그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때의 수요곡선은 빨간색 실선 D 이고,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때의 공급곡선은 파란색 실선 S 이다.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수요곡선은 D_t 이고,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급곡선은 S_t 이다. 따라서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의 균형은 수요곡선 (D_t)와 공급곡선 (S)의 교점 (E_d)이고,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의 균형은 수요곡선 (D)와 공급곡선 (S_t)의 교점 (E_s)이다.

그런데 D_t 는 D 가 초록색 실선으로 나타난 선분 E_sE_d 를 따라 (아래)로 t 만큼, S_t 는 S 가 해당 선을 따라 (위)로 t 만큼 평행이동한 선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입자에게 재화 1단위당 t 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와 공급자에게 재화 1단위당 t 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균형 (거래량)은 동일하고, 균형 가격은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보다 t 만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입자의 지불 가격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다음과 같다. 이 때 E_d 에서의 가격을 P_d , E_s 에서의 가격을 P_s 라고 한다.

상황(세금 부과 대상)	구입자	공급자
구입자의 재화 1개당 지불 가격	P_s	P_s
공급자의 재화 1개당 판매 수입	P_d	P_d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모양이 다른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화의 구입자에게 재화 1개당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나, 재화의 공급자에게 재화 1개당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나 부과하는 세금의 액수가 같다면 실질적인 결과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글쓴이가 ㉔에서 '기울기'라는 말 대신 '기울기의 절댓값'이라는 말을 쓴 이유를 추론하여 서술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를수록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므로,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0보다 작고, 그에 따라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공급곡선의 기울기보다 작다. 따라서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크기를 비교해서는 둘의 가파른 정도를 비교할 수 없고, '기울기의 절댓값'의 크기를 비교해야 둘의 가파른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13. 다음은 ㉕의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구분	의미	식
수요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공급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frac{\text{공급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다음은 ㉔에서 ㉕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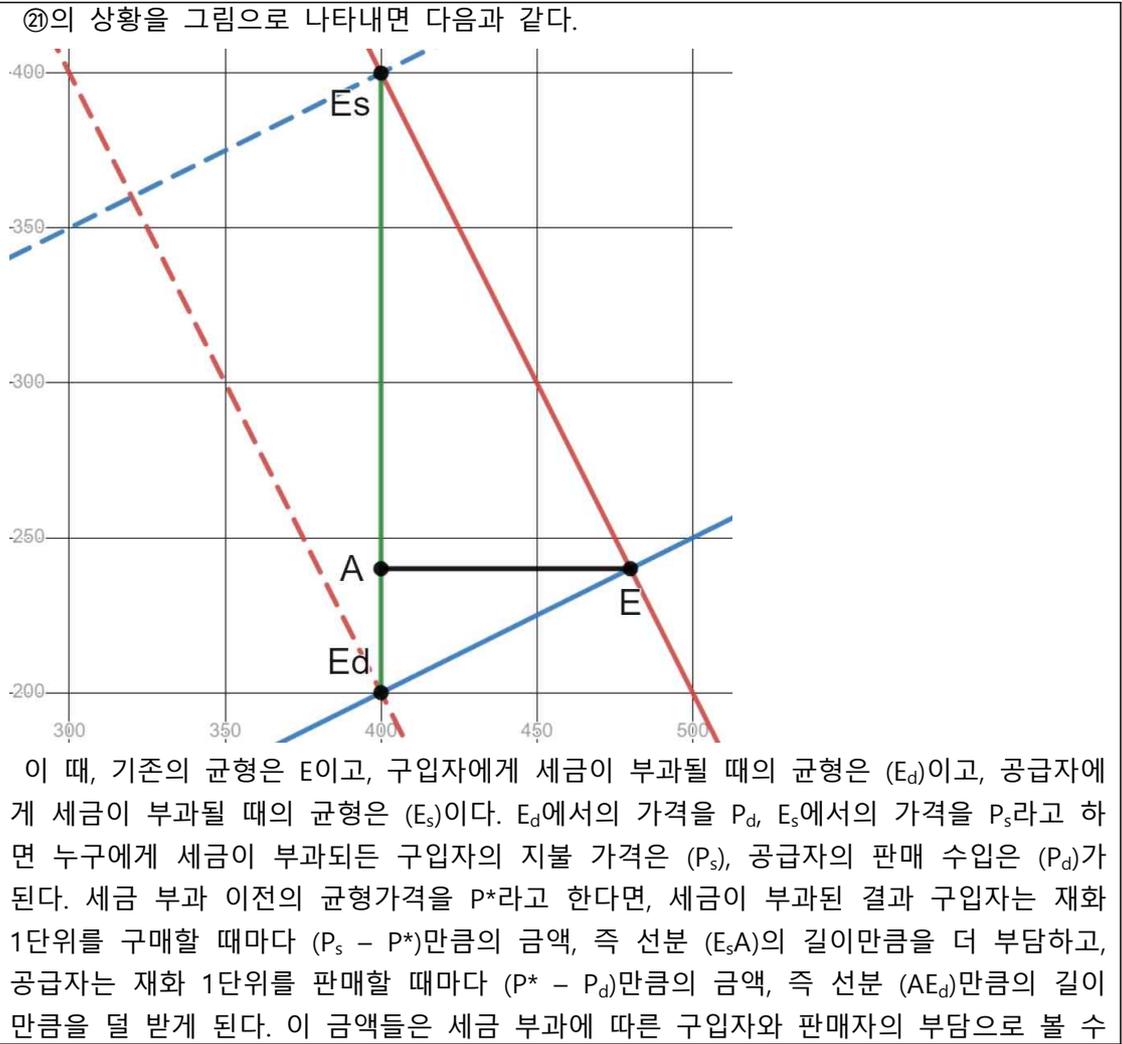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모두 일반적인 그래프와 달리, 독립변수인 (가격)을 (세로)축에,

종속변수인 (수량)을 (가로)축에 나타낸 평면에 표시된다. 그렇다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공급량이 변하는 정도가 클수록 수요/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그리고 가격탄력성의 정의에 의해,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공급량이 변하는 정도가 크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수요/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14. 문맥을 고려하여 ㉔의 대상(객체)이 '구입자'인지 '공급자'인지 '특정할 수 없음'인지 쓰세요.

특정할 수 없음
 (※ 지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구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그 액수만 동일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이는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 명시하거나 그에 대한 단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부과'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입자와 공급자 중 누구에게 부과된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15. 다음은 ㉔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있다.

그림을 보면, 수요는 (비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탄력)적이어서 수요곡선이 가파르고 공급곡선이 완만한 경우 세금 부과에 따른 부담의 대부분을 (구입자)가 떠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요가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어서 수요곡선이 완만하고 공급곡선이 가파른 경우 세금 부과에 따른 부담의 대부분을 (공급자)가 떠안게 될 것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

16. 다음은 ㉔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구입자)와 (공급자) 중

17. 다음은 ㉔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구입자든 공급자든,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입하거나 생산하는 재화의 양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 가격이 올라도 쌀 구매를 큰 폭으로 줄이지 못하는 구입자나, 설비의 문제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도 생산을 큰 폭으로 늘리지 못하는 생산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쪽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쪽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냐와 관계없이 낮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쪽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도 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